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펼쳐진다

남원시, 4월 30일~5월 3일 판소리 명창부·신인대전 등 총 6개 부분 13개 종목 진행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남원아트센터와 사랑의광장 일원에서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통의 보존과 현대적 재해석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국악 등용문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판소리 동원제의 발상지이자 춘향가와 흥보가의 배경지로 수많은 국악 명창과 명인을 배출한 국악의 성지 남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국악 정예들의 경연이다.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 남원아트센터와 사랑의광장 일원에서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연은 판소리 명창부와 일반부, 청소년부를 비롯해 무용, 기악관악, 기악현악·병창, 퓨전·창작국악, 판소리 신인대전 등 총 6개 부분 13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되어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특이한 호응을 얻었던 퓨전·창작국악 부문은 올해 참가팀을 기존 5팀에서 10팀으로 확대하고 상금 규모를 상향 조정해, 전통 국악의 대중화와 젊은 국악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대회의 위상에 걸맞게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 원과 함께 영예의 대통령상이 수여되고, 각 분야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국무총리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권위 있는 상이 주어진다. 또한 판소리 고등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퓨전·창작국악 분야 대상 수상팀에게는 국회의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각 부문별 우수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상이 마련돼 있어, 실력 있는 국악 인재들에게 뜻깊은 영예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대회의 공정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및 관리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는 한편, 수상자 축하공연 등 격조 높은 무대를 마련해 대한민국 대표 국악 대회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대회장인 최경식 남원시장은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전통과 권위를 이어가면서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며, "국악 인재들에게는 영예로운 무대가, 관람객들에게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계절 릴레이 꽃 명소로 각광

3월 산수유 · 4월 벚꽃 · 5월 철쭉 등 여행객들에 인기

남원시가 봄꽃이 절정을 향해가며 계절 릴레이 꽃 명소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남원의 봄은 주천면 용궁마을 산수유로부터 시작해 3월 중순이면 군락이 사진작가들과 관광객들의 출사 명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어 4월 초·중순에는 관한루 앞 요천 둔치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룬다. 봄의 정점인 5월에는 지리산 배재봉과 허브

밸리 일대가 신록과 붉은 철쭉이 하단부에서 시작해 정상부로 이어지는 철쭉 군락은 자연 속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산책 코스를 선사하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변모시킨다. 교통 편의성과 효율적인 동선은 KTX와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수도원에서 2~3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어 당일 또는 1박 2일 여



행지로 제격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6년 여행가는 달(4~5월)'과 연계하여 숙박, 체험 등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준비 중이어서 봄철 관광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춘 음악회 '송소희X두번째달X오단해 모던민요' 김제서 열린다

전통국악, 민요, 판소리의 정서와 현대 음악의 감각을 융합한 '송소희X두번째달X오단해 모던민요'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K-FOP 중심의 대중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민요, 판소리 전통예술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제시하고 전통의 맥을 잇는 국악인 송소희, 오단해와 국내 최초로 예스24 퓨전 음악을 선보인 밴드 두번째달이 의기투합해 전통과 현대, 민속과 세계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만들어 내는 공연이다.

특히, 현대적 사운드로 재해석 하는 형식으로 구성, 민요, 판소리의 서정적 선율은 유지하면서 바이올린, 만돌린, 아이리쉬 휘슬, 아코디언, 일리언 파이프 등 다양한 악기와 사운드를 활용해 모든 세대가 공감 할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을 구현한, '태평기', '군밤타령', '사랑가', '진도아리랑' 등 다양한 곡을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5부 '강패와 과거' (1)

강남준이 아닐까?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생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내가 알고 있는 강남준과 명화에 관한 얘기는 여그까지야." 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으며 강정근이 말했다. 강남준과 박명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급박하게 헤어졌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가 궁금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세요?"

강동식의 질문에 강정근은 막진을 입에 털어 넣은 뒤 고개를 저었다. 어제 저녁에 과음했음으로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는데 이야기가 무르익다 보니 술이 저절로 상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 북분지주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동식은 강정근의 기나긴 놚두리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긴 스토리였지만 강남준과 박명희의 처연한 이야기는 지금의 강동식과는 무관하였다. 피부에 감지될 정도로 감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추한 바위덩어리 같은 무게감을 어렵잖이 느낄 수는 있었다. 강정근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던 이유는 박창수와 강용대에 대해 알고 싶어 서였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창수와 강용대는 걸가지가 되고 강남준과 박명희의 아픈 히스토리가 주가 되고 말았다.

여전히 두 남녀의 슬픈 사연과 자신과의 접점은 없었는데 그래도 두 남녀의 스토리에서 등장하는 강용대와 박창수의 사연은 현재 왜, 박창수가 강용대를 죽이려 했는지에 대한 열쇠를 제시하고 있었다. 어쨌든 동식이 강정근을 만나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던 목적은 성취한 것이다. 강동식이 현재 알고 있는 박창수, 강용대는 강정근이 이야기한 과거 속 박창수, 강용대와 일치하는 인물로 추정되었다.

물론 지금까지 강정근에게 들었던 스토리 이후에 강용대와 박창수 간에 다른 다름이 존재할 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왜 박창수가 강용대를 죽이려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강용대는 박창수의 일가들을 모두 죽였다. 박창수는 그 복수를 위해 강용대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박창수는 동식에게 무장

면 도끼로 시목동 계곡에서 만나자 했고, 동식은 박창수를 그곳에서 만났다. 그곳은 바로 강용대가 황전마을의 박 씨들을 사살했던 장소였다. 박창수가 그곳에서 동식을 만나자 한 것은, 강용대가 과거 사악한 행위를 자행한 장소에서 그를 응징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주기 위한 아니었을까.

하지만 강용대의 살육행위는 반대로 그의 일가족이 모두 박씨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강용대가 복수하려 했던 건 아닌가. 누가 옳은지 아니면 누가 더 나쁜지 구분할 수는 없다.

물론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나쁘지만, 박창수가 갑자기 죽었다. 붉은여우 최수환 형사는 동식을 의심하고 있지만 동식은 박창수를 죽이지 않았다.

동식의 추측대로 강용대가 먼저 손을 쓴 것일까. 강용대는 80대 중반의 노인이라고 했다. 그가 어떤 정보력을 갖고 있기에 박창수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가.

죽이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먼저 죽여버릴 수 있을까. 너무 과한 설정이다.

강용대가 아니라면 누가 박창수를 죽였을까. 동식이 모르는 제 3의 인물이 또 있는 걸까. 강남준이 아닐까? 강남준이 살아 있다면 말이다. 강정근이 아닐까?

그러나 강정근은 소박했다. 풍물을 좋아하고 농사에 전념하는 푸근하고 인심 좋은 농부에 불과하다. 두 번에 걸쳐 강남준과 박명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박창수에게 적의를 들이낸 일은 없었다.

부안예술회관, 3월 무료 영화 상영

부안예술회관은 오는 19일 공연장에서 3월 무료 영화 '민약에 우리'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 '민약에 우리'는 구교환과 문가영이 출

연한 감성 드라마로 우연한 선택과 엇갈린 타임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인물이 '민약'이라는 가정을 통해 지나온 시간과 사랑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회당 선착순 499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